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

총 320명 투표 165표 얻어
 정련 스님 146표, 월서 스님 사퇴
 “종단안정·한국불교 도약” 다짐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지관 스님이 당선됐다.

지관 스님은 10월 31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총 320표 중 165표를 얻어 146표를 획득한 정련 스님보다 19표 차로 앞서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기호 7번 장주 스님은 1표를 얻었으며, 기호 5번 대우 스님과 6번 각명 스님은 한 표도 획득하지 못했다. 무효표는 8표.

이에 앞서 기호 4번으로 입후보한 월서 스님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접수시켰다. 개표 후 지관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공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지관 스님은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총무원장 당선을 고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법당 왼쪽에 마련된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영전에도 3배를 올렸다.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열린 당선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중도들의 뜻과 의지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특정 문중이나 교구의 지지가 아닌 25개 교구와 중앙총회의 고된 지지였던 점은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한국불교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관 스님은 또 “한국불교를 대표

하는 종단 지도자로서 이러한 중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해 종단 화합과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이외에도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수행 중풍을 진작해 위와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과 “대 사회적 자비행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이천만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종단을 만들어갈 것”을 향후 종단 운영 계획으로 내놓았다.

지관 스님은 △종단 안정의 확고한 기틀 마련 △교구활성화 실현 △‘자비와 나눔’으로 존경받는 종단 만들 것 △정보화·세계화 시대,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할 것 등 4대 종단 운영기조와 10개 분야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3·15면**
남동우·조용수 기자

정련후보측 ‘이의제기’

기호 2번 정련후보측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31일 오후 6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관 스님의 후보자자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등이 종헌준비에 맞지 않았다”며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가 실시되기 전 정련 스님은 다른 후보들과 함께 ‘결과 승복’을 서약하는 각서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했다.

조용수 기자

영문 포털 부다피아 eng.buddhan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보도 관계로 금주 신문 하루늦게 발송됩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관 스님(오른쪽)이 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지관 스님은? 불교학계의 거목·울맥의 적통

지관 스님을 설명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학승 그리고 울사. 지관 스님은 불교학계의 거목이며 한국 불교의 울맥을 이어 울학을 정립하는데 일생을 바쳐 온 울사다. 스님의 학문적 업적은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합박는’처럼 쌓여 왔다.

무엇보다 불교계에서 전인미답이라 할 수 있는 금석문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연구해 ‘역대고승비문총서(전7권)’라는 역작을 내놓았다.

일생의 원력인 ‘불교대백과사전’의 발간 작업도 지관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 그 자체로, <가산불교대사전>은 15권을 목표로 현재 7권까지 발행했다. ‘가산 학보’를 통한 후학들의 학문 독려와 한국불교학의 지평 개척 역시 지관 스님의 원력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울사로서의 지관 스님은 <계율론>을 비롯한 율장에 대한 학문적 성과로도 대변되지만 근대 계맥의 증흥조자언 스님의 울맥을 이은 장본인이다.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nia.com
- 시상 부문 · 대상(우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운산 스님 단독 후보

10일 봉사사서 선출
 태고종 제23대 총무원장 선거에 현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이 단독 입후보했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무원장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운산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는 11월 10일 서울 신촌 봉사사에서 실시한다. 선거는 총무원장선거법 제4조에

따라 중앙총회의원 40명이 중앙총회에서 투표 또는 효선으로 선출한다. **김원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함께 가는 **진리의 길**
 -설법제일 부루나

자광 스님 11월 2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할’

화엄경에 교묘하게 살아라 그속에 길이있다 했지

맛이 교묘하게 있으니 나 손저림이 있어

혹시 동맹경화 아닐까?

그림·조태호

무진장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당 선 소 감 문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중정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가 어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24개 교구본사주지스님과 군승교구장, 중앙총회의원을 비롯한 320명의 선거인단 스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대의를 몸소 실천하시며 끝까지 모범을 보여주신 정련스님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중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중도들의 뜻과 의지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특정 문중이나 교구의 지지가 아닌 25개 교구와 중앙총회의 고된 지지였던 점은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한국불교가 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지도자로서 저는 이러한 중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종단 화합과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정화 이념과 통합종단의 정신을 계승하고 1994년 개혁불사의 성과를 이어받고 있는 우리 종단은 제2의 증흥과 백년대계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에 저는 미려하나마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수행 중풍을 진작하여 승가의 위와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 사회적 자비행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이천만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종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세계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심고 종단의 원용화합을 위해 헌신해온 인곡당 법장대중사의 원력을 추모합니다.

또한 종단의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오셨던 총무원장 직무대행 현고스님 이하 중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중무 행정을 인수함으로써 중무행정의 공백과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경책과 관심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49년 10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당선자 지 관 합장